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오후(4부)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4부(오후)	5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10월 3일 (제1117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위드 코로나

방역 당국은 곧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위드 코로나(with Corona)'란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으로,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늘리는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한다는 방역 전략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 '위드 코로나'처럼 우리는 늘 마귀와 악한 영과 귀신과 함께 사는 '위드 귀신'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것들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틈만 나면 우리를 감염시켜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죽게도 만든다.

마귀는 영존체이므로 죽어 없앨 수 없다. 우리와 늘 함께 산다. 그러나 대책은 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와 악의 영과 귀신들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내어 쫓을 수 있고, 그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하듯, 우리는 늘 성령충만이라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백신도 한 번 맞는다고 평생 그 효과가 있던가? 아니다. 벌써부터 2회 백신 접종을 마쳐어도 다시 1회 더 접종해야 한다는 부스터샷(booster shot)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성령충만을 받았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기도로 성령충만을 유지해야 악한 것들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살전5:19)라고 당부하시며,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하신다(살전5:17).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40일간 금식기도로 성령충만 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었다. 또한 성령을 받으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백신을 맞고 시작하신 것이다.

사는 동안은 마귀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 그래서 백신을 맞듯 늘 기도로 성령충만을 입어야 한다. 백신도 각각 효능에 차이가 있듯 한 시간 기도한 사람과 네 시간 기도한 사람의 효능은 다를까? 알자. 성령충만을 입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위드 하나님(with God)'이 된다. 그런 자가 누가 당하겠는가. 감히~~~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예수님

"나는 백과사전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백과사전을 활용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온갖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생활에 접목하지 못하는 사람은 싫다. 사회에 이바지하고, 남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지식인, 참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목사님이 봉우칼럼을 통해 하신 말씀이다. 학교 때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했다.

"위대한 작가나 철학자의 글, 사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의 생각, 통찰이 오늘의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가 험뵈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2:15-16).

목사님도 이 점에 대해 말씀하셨다.

"지금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지옥요?'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 이보다 더하겠어요?'라며 마음 문을 굳게 닫을 것이다. 복

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요4:48). 내 목회 37년 동안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 7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믿는 자 속에서 그대로 역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전한 것이다. 왜 세계 목회자들이



2007 제11회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가 진정 중요하다."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닌 오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될 수 있어야 진정한 지식이란 말씀이란 뜻에서 일맥상 통한다.

목사님은 또한 성경읽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백독했다고 자랑하는 것보다 성경의 한 말씀이라도 읽고 깨달아 생활에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앞에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만일 죽음 다음의 문제만을 위해 오셨다면, 공생애 사역의 대부분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에 그토록 매진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했다. "만일 형제나 자매

음이 무엇이나? 말 그대로 '복된 소리'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란 그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다는 소식이다. 병든 자에게 복음이란 그 병에서 고침 받는 길이 있다는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앞에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해주시려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의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은 '당신의 가난과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다.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내가 목회에 성공한 비결도, 예수께서 3년 공생애의 3분의 1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전도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계신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한국까지 몰려와 배우려했을까? 바로 나와 함께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는 것 아니겠는가."

혈루증으로 고통 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 받은 사건,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사건, 문둥 병자, 중풍병자, 귀머거리, 병어리, 앓은뱅이 등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 받은 사건이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걸린 여인, 여섯 남편을 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등 삶의 고통 속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얻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요,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이에게 예수님은 현존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된 소식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진행됩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5:13~16)

사람도 물건도 질이 좋아야 인기가 좋다

언젠가 한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봐, 6년 된 산삼은 누구나 먹을 수 있대네. 10년 된 산삼도 돈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말이야, 100년 된 산삼은 산삼이 사람을 고른다는 것을 아냐? 자네가 100년 된 산삼이 된다면 국가가, 기업이 자네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국가를, 기업을 택할 수 있대네. 그런 사람이 되게.”

맞습니다. 품질이 좋으면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기업에서든, 어느 나라 사람에게든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나쁘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지요. 세계를 주름잡던 소니(SONY)가 밀려나고 삼성이 시장을 점유하듯 말입니다. 절대 고객은 품질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입니다.

옥(玉)도 다듬지 않으면 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원리가 물건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올시다. 저는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질이 좋아야 잘 팔리는 법이니까요.

먼저 육적인 질부터 논해볼까요? 몸이 건강해야 다음을, 미래를 논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은 닦으면 쓸 수가 있지만, 깨진 그릇은 못 쓰기 때문입니다. 어느 CEO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고 하자 많은 학생은 물론 교수들까지 이 강연을 들으러 몰려들었습니다. 성공 담화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수를 받으며 등단한 강사는 바로 준비된 칠판에 ‘1,000억’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의 재산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러자 다들 ‘우와’ 하며 환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富)를 어떻게 거둘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1,000억에 0이 세 개 있지요? 맨 마지막 ‘0’은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0’은 ‘관리’입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0’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성공의 동기를 만들어주고, 가족이 최대의 힘이니까요. 그럼 이제 ‘1’이 남았네요. 이 ‘1’이 없으면 뒤에 있는 ‘0’은 아무리 많아도 ‘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1’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명예도 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0’의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마16:26)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인색하지 마세요. 좋은 음식도 먹여주고, 좋은 약도 먹여주고, 적당한 운동도 해서 내 몸이 건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위에 다음 것들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혼의 품질입니다. 세상은 대개 이 혼적인 질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말에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 뛰어나고 기



총회장 이초석 목사

술이 남다르고 지식이 출중하고, 인격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회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잘 팔리고, 서로 모여 가려고 경쟁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력도, 기술도, 지식도, 인격도 뛰어나게 될까요? 노력하면 됩니다. 성공은 신화나 기적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비료를 줄 때 얻게 되는 열매입니다.

오늘의 제가 된 것은 두 친구를 잘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도와 노력이란 두 친구입니다. 사실 기도도 노력입니다. 성경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기도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농사꾼의 아들인 제가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세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섭렵하세요. 기술을 익히고 개발하고 연구하세요.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왜 취직이 안 되겠습니까? 왜 승진이 안 되겠습니까? 왜 장사가 안 되겠고, 왜 수출이 안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요? 핑계일 뿐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잘 나가

는 사람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잘 사 잘 되는 집은 문 앞에 줄을 섭니다. 그런 자가 누구냐? 부지런히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노력이라는 무기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잠 24:5)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뛰어난 지식이, 뛰어난 기술이, 뛰어난 실력이 힘ियो, 돈ियो, 명예요, 내일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게으름을 벗어나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내 주가를 높입니다.

또한 인격의 질도 노력해야 좋아집니다. 성경에는 “덕에 지식이 있어

야 한 다 고 했 습 니 다. 덕이 지식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지녔더라도 덕을 겸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의 질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음담패설이나 하고, 음행이나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늘 심비에 두십시오.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벧후1:4~7).

다음은 영적인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영적인 품질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영적인 질을 높이는 것이란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질이 좋은 자를 택하

그와 일하시고, 그를 축복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곧 850대 1의 정면 대결을 펼치기 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찌니라”(왕상18:21). 엘리야의 확실한 신앙이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 문을 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분명한 신앙을 보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곧은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고 주장하다 기성 교계에서 제명되었습니다. 그 말만 접었으면 충분히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제가 경험했기에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사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 할 일도 없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영적인 질이 높아라.” 하시며 이렇게 경고하고 독려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 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5~16). 영적으로 품질이 좋은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사형통은 물론이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그의 것이 되어 누구나 우러러 보는, 산 위의 동네 같은 존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왜 다들 명품, 명품 할까요? 품질이 좋은 것을 물론이고, 소장하면 괜히 나도 명품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명품인생은 명품을 걸친다고, 명품백을 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의 품질을 향상시킬 때 명품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하는 자가 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용달샘 ::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우리나라는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미풍양속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무서운 형벌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자식을 창조하셨으므로 부모는 하나님과 창조의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위선이며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 어른들에 대해서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32).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어른들의 권위는 추락하고 오히려 ‘꼰대’라는 말로 어른들이 희화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나 선생님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꾀계입니다.

인권이나 자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단어를 내세우며 권위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을 제정하여 학생들에게 성관계의 자유, 낙태, 임신, 출산의 자유를 주자는 해괴망측한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의 자유로운 미래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일시적으로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교사들과 부모, 그리고 어른들의 가르침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동네 불량배들도 모여서 담배를 피나물고 있다가도 어른산네가 지나가면서 헛기침을 하면 담배를 숨기고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은 훈계를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장면들이 심심찮게 유튜브에 올라온 합니다. 어른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올바른 신앙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지극 정성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목회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wapyung@hanmail.net

:: 세상을 보는 창 ::

행복의 비밀

영국 런던에 있는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는 17세에 교회를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 평생을 교회 청소와 봉사 및 관리를 했다. 그는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맡은 일에 헌신하며 충성했다. 그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시간에 맞춰 교회 종탑에 있는 종을 치는 일이다. 니콜라이가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민들은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의 종소리에 맞추었다고 할 정도로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다.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교수가 된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이제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니콜라이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해.”

그가 76세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 종을 치다 종탑 아래에서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의 묘지를 그에게 내주었으며, 그의 가족들을 귀족으로 대우해주었다. 모든 상가와 시민들은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심지어 유흥주점도 문을 열지 않자 자연

히 그가 세상 떠난 날이 런던의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행복의 비밀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인지 고귀한 일인지는 남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고귀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일과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몇 주 전 설교시간에 목사님께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신34:7)고 말씀하시면서, ‘난 은퇴란 없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까지 일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목사님은 사명에 부도내지 않는 분이요. 직분에 충성된 분,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도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정금 전도사

선(善)을 행한다는 것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병원장인 메이요 박사가 자동차로 시골을 여행하다 고갯길에서 그만 자동차가 고장이 나 버렸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는데, 어느 중년 부인으로부터 그는 따뜻한 위로와 차가운 우유 두 잔을 대접받았다.

몇 해가 지나 공공롭게도 그 부인이 중한 병으로 메이요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게 되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그녀는 많은 수술비가 걱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건넨진 청구서에는 ‘천오백 불의 치료비는 두 잔의 차가운 우유로 이미 모두 지불되었음. 원장 메이요 박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 부인은 자동차 고장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부드러운 말과 차가운 우유 두 잔의 친절로 대했을 따름이었는데...

톨스토이의 단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눈이 내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주인공은

두터운 군용외투를 입고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당 앞에 노인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떨 떨고 있었다. 주인공은 이를 보고 참 안됐다 생각했지만 그냥 길을 지나쳐 걸었다. 그러나 자주 조여 오는 앙심에 도저히 그대로 갈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 그 떨떨 떨고 있는 노인에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벗어 입혀주고는 쏘아지는 눈을 털어내며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꿈에 낙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늘 너 때문에 참으로 따뜻했다.”라고 등을 두드려주시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마10:42).

예수중심편집실



:: 낮은 울타리 ::

주님께 시선 고정하기

새벽기도를 시작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사실 새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거창한 기도 제목이나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으로 새벽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작은 깨달음을 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찮게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들을 하나씩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마음이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전도사님께 털어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사님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되짚으니 문득 나의 고민들이 참 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던 저의 고민은 돈과 세상에서의 명예에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발견하자마자 아차 싶어 ‘내일부터 새벽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육성으로 다짐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며 저는 ‘기도로 하루를 열리라’고 예배시간에 간절히 외치신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기도는 조금하던 제 마음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평안이 가득

하게 했습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의 손길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한 시간의 기도가 하루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대학부원 중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인원들이 있었는데, 이들 또한 더욱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새벽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돈도, 명예도, 사업 성공도, 좋은 학점도 아닌 바로 주님과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새벽기도를 왜 시작하게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성령충만을 잃으면 야성 잃은 호랑이, 독수리가 된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치열하게 살면서도 야성과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께로 다시 시선을 고정시켜주신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질 때 새벽에 주님을 만나세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내 마음에, 내 환경에, 내 상황에 임할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삶을 바꿉니다. 장수정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들을 해고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업체와 거래를 끊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슬럼프에 빠지거나 뜻하지 않던 위기가 닥치면 하고 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매너리즘에 빠질 땐 지금 주어진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른 채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주신 액자의 글귀를 보며 흥분한 마음을 다독이고 생각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울타리를 칠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는 가르침을 자주 하십니다. 10년 전 회사를 창립할 때, 총회장 목사님께 그 말씀을 받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상고하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회사를 이끌어오게 된 지표가 되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세울 때 창립 멤버였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차비와 식대밖에 없어. 정말 열심히 일귀내서 꼭 열매를 함께 나누자.”고 창업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모아두었던 돈과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

로 일단 어떻게 해보겠다며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이 일을 꼭 함께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땐 우리에게 넉넉한 자금도 없었고,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건강한 신체와 타오르는 열정뿐,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무작정 찾아간 한 업체에서는 젊은 여자 둘이서 어쩔 이렇게 무턱대고 찾아오느냐며 그 기백에 감동했다고 거래를 터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뽕뽕 뭉쳐 하나둘씩 일을 해쳐 나갔습니다.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고, 3년이 지날 즈음 그는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감당해내기 힘들 정도로 서로 할 귀고 상처가 되는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확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같아 사무실에 앉아 평평 울고 있었는데, 눈앞에 한 글귀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울타리를 칠 때는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하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성해 교수가 되었거나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 자식들이 모두 떠난 산골 집에는 노인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멀리서 찾아온다는 소식에 그는 정성껏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하지만 곧이어 오지 못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고, 준비했던 음식들은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친구를 불러 함께 식사할 계획을 세우지만 누렇게 색이 바랜 낡은 수첩을 한참 동안 뒤적거려도 식사할 만한 친구를 찾지 못하고 결국 노인은 식탁에 가득 차려진 음식을 쓸쓸히 홀로 먹는 마지막 장면 위로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을

사업의 울타리를 치기 시작할 때 그 친구에게 느꼈던 고마운 마음, 성공해서 꼭 그 노고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흐르는 물 한 컵에 대한 은혜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며 아름답게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결혼, 생일, 명절 때마다 처음 울타리 칠 때의 마음으로 크고 작은 선물을 하나씩 보내 마음의 은혜를 갚았고, 여전히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이직할 때마다 우리 회사에 꼭 개발 의뢰와 발주를 넣습니다. 지금은 꽤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하여 상상 이상의 제품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전에 함께 창업을 하며 힘들었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뿌듯해했던 그 시절 추억담을 나누며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다 포기하고 싶나요? 크게 한숨을 고르고 울타리 칠 때를 생각해보세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은유 집사

함께할 친구가 있습니까?라는 자막이 흐릅니다.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도 고독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거나 죽음을 앞두고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영생복락의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변치 않는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Good News

대만의 한 시사 잡지에서 ‘미래의 노후’라는 주제로 웹 영화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노령인구로 인해 달라질 미래의 모습들을 다룬 웹 영화들은 사람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의 노후-친구’편은 많은 독신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영화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노인의 자식 네 명은 모두 장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주님

경주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스터디카페는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지역의 학생들과 취준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행복은 범사에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고백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많은 인생의 시련 끝에 얻은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아울러 온유와 겸손의 명예를 메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도 결코 쉬운 삶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느 날 나를 돌아보니 가족들은 병들어 있고, 삶은 피폐해져 있으며, 몸은 병들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처참하기 짝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은 뒷전에 있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삶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러니 당연히 피폐한 삶의 연장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 저는 왜 이리 끝이 나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에서 방황해야 할까요?’라며 애통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거의 6개월 이상 ‘주님, 내 뜻을 버리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내 주관대로, 내 뜻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온 나를 버리기에는 힘겨운 눈물의 시간이 필요했고, 고통의 시간도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쩌면 누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않을 ‘나’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유익을 맛본 이후에도 가끔 고개를 쳐들며 내 뜻대로 움직이는 나를 발견하곤 하니 이 훈련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삶은 온전한 축복의 삶이요, 행복의 초석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오자유 집사

구조조정

처음 식당을 오픈할 때 주방 3명, 홀 3명, 총 6명의 직원이 있는 가게를 인수했다. 테이블 4개의 회전은 빨랐고, 배달 중심이라 큰 매출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월말정산을 해보니 높은 인건비와 폭등한 임대료로 인해 앞으로 남고 뒤로 밀리는 장사였다. 10년 사이 4명의 주인이 바뀐 이유를 알 것 같다.

고민 끝에 영업시간을 늘리고, 퇴근 후 딸과 나는 전단지들을 돌리며 전면채신을 꾀했다. 그러나 오히려 직원들의 임금인상요구와 불만이 이어졌고, 결국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끌려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불경기에 인건비의 절반이라도 건진 걸 감사하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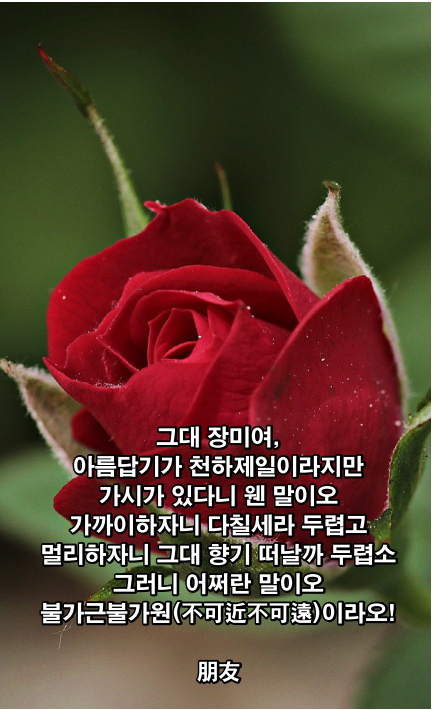
나는 이를 악물고 그들의 도움을 최소화하며 일에 매진했다. 오후에 서빙을 돕던 당시 고3이던 딸이 “엄마, 혼자 다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라고 했지만, “아니야.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 요령과 순발력이 생기지.” 했다.

몇 개월 후, 나는 자신감을 얻은 후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대기업도 아닌데 무슨 구조조정이냐며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졸업과 동시에 딸에게 홀을 맡겼고, 아직은 생소했던 대행업체를 선점하여 훨씬 낮은 임금으로 대체했으며, 가족 위주로 운영하며 변화와 개혁에 성공했다. 흥망을 지켜보던 전 업주에게 구조조정이 필수임을 강조하자, ‘사장이 돼서 체면이 있지.’ 했다. 그러라지!

빛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배달하는 엄마의 모습에 머뭇거렸던 딸도 부끄럼을 개의치 않고 열정적이다. 바쁜 와중에도 가게 안은 항상 목사님 설교가 울려 퍼진다. 직원이라면 꿈도 못 꿀 사장만의 특권이라고 감사를 딸에게 주입시키며 지혜를 얻고 영적인 충만도 채운다. 때에 맞는 구조조정으로 나는 호황 중이다.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개혁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거라고. 어려운 시기인 지금이 구조조정 할 때다.

추성숙 집사



그대 장미여,
아름답기가 천하제일이지만
가시가 있다니 웬 말이오
가까이하자니 다칠세라 두렵고
멀리하자니 그대 향기 떠날까 두렵소
그러니 어쩌란 말이오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랴오!

朋友